

# SK에너지, 긴축 · 위기의식 재무장

유가폭등 · 물가불안으로 긴축경영 돌입 ... 회식문화 자제해 비용절감

SK에너지 신현철 부회장은 최근 경제상황이 국제유가 폭등과 물가불안 등으로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긴축경영과 위기의식 재무장을 강조했다.

SK에너지에 따르면, 신현철 부회장은 최근 사내 방송을 통해 전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미국 달러화 약세, 서브프라임 모기지 후유증, 국제석유시장 수급불균형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국면”이라며 “긴축경영에 앞장설 시기”라고 말했다.

또 “위기상황에서 에너지기업인 SK에너지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8년 5월 석유제품 수출규모가 조선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 정유기업들이 명실상부한 수출 기업으로 자리잡았으나 국민 대부분은 휘발유, 경유를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얻는 기업으로 꼽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모든 구성원들의 위기의식을 당부했다.

또 “고유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내 적정온도 유지, 절수, 점심시간 PC 끄기 등 다양한 사내 에너지 절감 대책을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과도한 음주 회식문화를 자제해 비용 절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철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저녁식사 이후에도 길게 이어지는 술자리 등 무리한 음주문화는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이제는 회사의 회식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정한 의미에서 직원들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건전한 회식문화를 정착시키면서 레크리에이션과 문화활동, 동호회 활동, 특히 사회공헌 활동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SK에너지 울산공장은 2008년을 <절주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4월부터 매월 첫번째 금요일을 <술 없는 날>로 정해 운영하는 한편, 원샷 금지, 잔 돌리기 금지, 강권 금지, 폭탄주 금지, 2차 금지 등 5가지 금지조항을 담은 <5(Oh)-NO>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7/07>